‘미국 표류민 학대 문제’와 맥도널드의 경험

–미일화친조약의 전야–

鄭夏美*
junghm@hanyang.ac.kr

Contents

Ⅰ. 문제제기
Ⅱ. 로렌스호와 라고다호선원의 일본 표착과 ‘학대문제’로의 부상
Ⅲ. 맥도널드와 3건의 다른 선원에 대한 대우
Ⅳ. 나가사키의 상황과 맥도널드의 영어교사로서의 역할
Ⅴ. 결론

Abstract

日米和親条約はアメリカ漂流民の救助と捕鯨船の寄航地の開放を主要内容とする条約であった。漂流民の救助が第一としてあげられているのは当時アメリカ捕鯨船が日本の海の沿岸に多く操業をしていたことと海難事故にあった捕鯨船の船員の対応に問題があるという認識があったからである。本稿では日本に漂着したロレンス号とラゴダ号のケースを検証し、同時期に日本に偽装漂流しアメリカまで帰還したマックドナルドの経験が書かれた個別的な記録とを対比しながらアメリカ漂遊民に対する日本の対応を検証した。とりわけ漂着の時点の様子、長崎に護送されるまでの経緯、食事の内容、通訳問題、オランダ商館との関係、長崎奉行所での尋問、商館長との交流、踏み絵など各藩、江戸幕府や長崎奉行所が行った多様な待遇を検討し、<アメリカ漂流民虐待問題>と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のかを究明した。その結果アメリカで報道された事実と実際の事実との格差を検討し、<虐待>の実際の状況が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明らかになった。日米和親条約で重要な課題であった漂流民問題は、続く日米通商条約では重要性が減り、懸案の問題でなくなる理由についても検証を試みた。

Key Words : 日米和親条約、ラナルド·マックドナルド、ロレンス号、ラゴダ号、捕鯨船、英語教師
Treaty of Kanagawa, Ranald MacDonald, Lawrence, Lagoda, Whaling ship, Native English Teacher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07년 한양대학교 일반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2007-G)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문제제기

에도 막부는 1854년 3월 31일 2차 내항한 페리제독과 미국과의 최초의 조약인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였다. 페리가 처음 1853년 7월에 내항하였을 때에는 우라가에 급하게 마련된 응접소에서 목례만 했을 뿐 양측 모두 단 아무 말도 없이 필모어대통령의 국서를 전달하고 곧 퇴장(目礼計ニて、一言も不二相交一、直に退散)[1]하였는데 1854년 2월 11일에 페리가 다시 돌아온 후에는 한 달여간의 교섭 끝에 총 12조로 구성된 조약에 두 나라가 조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약문은 일본문, 영문, 한문으로 작성되고 후에 네덜란드어문이 추가되었는데 [2] 그 중 일본문에만 미국측 페리와 일본측의 하야시 후쿠사이(応接掛儒役林大学頭復斎), 이도(町奉行井戸対馬守覚弘), 이사와, 우도노(目付鵜殿民部少輔長鋭) 5명의 실무자의 서명이 있을 뿐이어서[3] 체결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애초에 필모어대통령이 국서에 표명하였던 자유무역, 난파선원에 대한 인도적 취급 및 재산의 보호 선박에 대한 석탄, 식료품, 식수 보급, 개항에 대한 요구 중 이 조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자유무역뿐이어서 미국측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알 수 있다.[4] 자유무역에 관해서도 물론 일본측이 강력하게 거부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당시 미국측이 대일무역의 개시를 중시하지 않은 것[5]에 이 사안이 성사되지 않은 원인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미국측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조약이지만 다시 한 번 일본문의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포경선과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을 왕복하는 미국의 증기함선의 기항지로 시모다와 하코다데 개항을 요구한 것 이외에 표류민에 관한 조항이

---

1) 東京大学史料編纂所編纂(1984)『大日本古文書 幕末外国関係文書』東京大学出版会、pp.1－121.
2) 일본측의 원본은 막부말기에 화재로 소실되고 미국 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만 원본이 현재 남아 있다.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소장
3) 영문에는 페리의 서명, 네덜란드어에는 일본측 통역 모리야마 에이노스케의 서명만 있다.
4) 필모어 대통령은 국서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며 무력을 암시하였다. 자유무역은 이로부터 4년 후인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가능하게 되었다.
5) 石井孝(1972(초간), 2010(개정판))『日本開国史』吉川弘文館, p.2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많다는 점이 크게 눈에 띈다. 제3조는 합중국의 선박이 일본연안에서 표착하였을 때 이를 구조하고 표류민은 시모다나 하코다데에 호송하고 표류민 및 소지품을 미국측에 양도(合衆国の船日本海浜漂着之時扶助いたし其漂民を下田又は箱館に護送し本国の者受取可申所持の品物も同様に可致候)하도록 조건화하고 있으며 제4조는 표착하거나 도래한 미국민에 대하여 타국처럼 원만하게 대하고 구금하지 않고 법도에는 복종하도록(漂着或は渡来の人民取扱之儀は他国同様緩優に有之閉籠メ候儀致間敷乍併正直の法度には服従いたし候事)하며 제5조는 합중국표류민이 시모다나 하코다데에 체류하는 동안 나가사키에서 중국이나 네덜란드인처럼 가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合衆国能漂流民其他の者と者当分下田箱館逗留中長崎爾於て唐和蘭人同様閉籠免窮屈能取扱無之) 총 12조의 항목 중 3개의 항목에서 표류민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閉籠', '籠免窮屈'이라는 표현이나 '나가사키에서 중국이나 네덜란드인처럼 가둔다'는 표현은 상당히 노골적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전의 사례에서 미국 표류민이 閉籠, 籠免窮屈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페리는 대통령의 국서와 함께 '지금까지 미국의 인민이 일본 해역에 표착하면 마치 원수처럼 취급하였는데, 그 예로써 모리손호, 라고다호, 로렌스호가 있다'고 구체적인 선박이름을 예시하며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전의 개별적인 송환의 과정에서 표류민이 구금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소위 '미국 표류민 학대'의 주장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일까? 당시 미국 측이 미일화친조약을 맺으려는 소기의 목적이 표류민 구조와 기항지확보에 있는 만큼 페리가 도달하기 이전에도 일본연안에 도달한 미국선박이 있었고 표착민의 송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종래 페리 이전에 일본에 도달한 미국선박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약체결이전의 미국선박선원들의 개별적인 송환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의 주장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과연 '학대'의 실체는 어떠하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페리가 예시한 사례 중 모리손호의 경우는 포경선이 아닌 상선이고 미국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표류민이 아니라 일본의 표류민을 일본으로 돌려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6] 에도막부에 의하여 모리손호가 포격을 당한 점은 문제가 될 지 모르나 미국 포경선의 선원의 대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주로 로렌스호와 라고다호의 사례에 비중을 두고 검증해 보고자 한다.[7] 이 두 선박이 일본에 표착한 시기는 각 1846년과 48년이므로 페리가 처음으로 일본에 오게 되는 1853년보다 5년에서 7년 전의 일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 사건을 페리가 언급하게 된 것은 이 사건들이 당시의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었고, 상원의회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렌스나 라고다호의 선원들은 언론 보도와 송환시의 조서 외에는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자료로 남기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처우가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그런데 같은 무렵 일본에 표착하였다가 라고다호의 선원들과 함께 미국군함 프레블호를 타고 일본을 떠난 또 한 사람의 미국인 포경선 선원이 있다. 라날드 맥도널드(Ranald MacDonald, 1824-1894)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는 일본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수기로 남기고 있다. 그가 쓴 수기는 그의 생전에는 출판이 되지 않았지만 1923년 미국에서 간행되었다.[8] 그는 라고다와 로렌스호의 선원과 직접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시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같은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의 수기를 살펴봄으로써 라고다와 로렌스호의 선원에 대한 처우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표착지에서 나가사키로 이동하여 송환되었으므로 에도막부측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 그룹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맥도널드의 기록을 통해서 미국 표류민의 대우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맥도널드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유의하면서 어떠한 점을 일반화할 수

6) 정하미(2011),「페리 함대의 통역자 윌리엄스의 경험과 역할 - 미간행 자료의 발굴-」『일본어문학』, 제52집.
7) 라고다호와 관련된 공식기록은『通航一覧続輯』第4巻問123、北亜墨利加部20』, pp.373-378.
8) 수기의 제목은 *Story of Adventure of Ranald MacDonald; First Teacher of English in Japan*이고 한 편은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도서관에 또 한편은 미국 워싱턴주의 스포큰시의 시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간행된 책은 Willian S. Lewis and Naojiro Murakami, eds., (1923)*Ranald MacDonald; The Narrative of his Early Life on the Columbia under the Hudson's Bay Comany's Regime: of his Exeriences in Acific Whale Fishery; and of his Great Adventure to Japan;with a Sketch of his Later Life on the Western Frontier 1824-1894*, The Eastern Washington State Historical Society.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을지 맥도널드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국 표류민의 처우문제’를 객관화하고자 한다. 일본에게 커다란 변화를 유도한 페리의 내항과 조약체결은 ‘미국 표류민의 학대문제’가 유발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내용과 파장에 대하여 상세히 경위를 살펴봄과 동시에 표류민의 송환이 어떻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표류민 송환에 관한 연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사례가 많고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고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미국 표류민 송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Ⅱ. 로렌스호와 라고다호선원의 일본 표착과 ‘학대문제’로의 부상

미국의 포경업은 1660-70년경부터 미국 동부의 난타켓에서 시작되어 소형보트로 해안 근처의 긴수염 고래를 포획하다가 1712년 하세이라는 사람이 향유고래를 포획하여 큰 돈을 번 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9] 그 후 범선을 모선으로 하여 고래를 발견하면 탑재한 수척의 보트로 다가가서 포획하고 선상에서 기름을 짜고 수염만 채취하여 나머지는 바다에 버리는 해상채취방식으로 고래잡이가 진행되었으며 점차 어장을 확대하여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다.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1791년경부터라고 한다. 1818년에 향유고래가 발견되면서 점차 일본연안까지 출몰하게 되어 1819년 10월 26일 마로호가 난타켓을 나와 미국대륙 남단의 혼곶을 지나 일본에 다가와 3개월 동안 1,100바렐을 얻었다.[10] 이 무렵 일본에 도달한 미국적의 포경선은 30척이고[11] 1829년에는 203척, 5년 후인 1834년에는 421척에 이른다. 1834년은 포경업이 성장하고 대약진을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다. 1846년 포경선의 선박수는 736척이고 총 톤수는 233,262

9) ナサニエル・フィルブリック(2003)『復讐する海 捕鯨船エセックス号の悲劇』(In the Heart of the Sea)集英社, ハーマン・メルヴィル(2000)『白鯨』, 講談社.
10) 川澄哲夫(2004)『黒船異聞』有隣堂.
11) 田保橋潔(1977)『増訂・近代日本外国関係史』旗書房, pp.298-2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톤이므로 1840-50년 사이가 포경산업의 피크[12]에 해당하는 절정시기라고 할 수 있다.[13] 고래잡이 조업에 나선 미국선박은 1840년은 552척, 1842년에는 652척으로 세계의 80%에 해당한다. 그 중 일본연안에 도달한 포경선은 1843년에 108척, 1846년에는 292척이다.[14] 로렌스호와 라고다호가 일본에 표착한 것은 1846년과 48년이므로 실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배가 일본의 연안에 표착한 것은 로렌스호가 처음은 아니다. 일본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는 1791년 기이오오시마(와카야마현)의 가시노우라(樫野浦)에 표착한 미국 선박이다.[15] 1791년 4월 4일「樫浦沖に異国船渡来」라는 급보를 받고 기이번의 행정당국의 사자가 도착하자 이미 선박은 사라지고 '본선이 미국상선이고 동이나 철이나 화포를 싣고 승무원은 100명이고 선주명은 堅徳力記'이라는 한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남아 있어 아마도 동승한 중국인이 작성하여 남긴 것이고 이로 인해 선장이 켄드릭(堅徳力記)인 미국선박이 정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선박은 영국령이었던 미국의 서해안에서 모피를 매입하여 광동으로 보내는 무역선으로 그 도중에 일본에 표착한 듯하다. 시기적으로 보아 아직 포경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일로 보인다. 포경선으로서 일본에 표착한 처음은 로렌스호이다. 이어 2년 후에 라고다호[16]의 선원이 표착하였다. 1845년부터 1850년까지 네덜란드 상관장의 직책에 있었던 레피존(Joseph Henry Levyssohn, 1800?-1883)은 그 5년간 총 55명의 외국인을 송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27명이 영국인이었으며 나머지 23명은 미국인이었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총 4척의 미국의 포경선이 일본에 표착하였는데 미국인의 내역은 로렌스호(7명 중 1명 사망)선원 6명, 라고다호선원 13명(이외에 2명 사망) 그리고 맥도널드, 라이덴트호선원 3명이다. 그 중 로렌스호, 라이덴트호 선원은 네덜란드의 정기선박으로 귀국 송환되었으며 맥도널드와 라고다호의 선원은 네덜란드 상관이 광동의 네덜란드 영사를 경유하여 표류민의 실태를 미국

12) 1835년 97,649톤에서 1853년 206,286톤. 石井孝(1972)『日本帰国史』吉川弘文館, p.26.
13) W. S. Tower(1907), *A History of the American Whale Fishery*, Universiry Philadelphia, p.50.
14) 庭野吉弘(2008),『日本英学史叙説』, 研究社, pp.10ー18.
15)「南紀徳川史」(1971) 名著出版.
16) 이외에 라이덴트호가 1849년에 표착하여 3명이 네덜란드 상관의 정기선박으로 일본을 떠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사관에 전달한 결과, 미국 정부가 군함 프레블호를 나가사키에 파견하여 그 선박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로렌스호 선원표착건은『嘉永雜記第弐冊』에 기록되어 있다.[17] 이에 의하면 弘化3年4月11日 일본의 북방 에토로프섬에 표착하여 아이누(蝦夷人)인 2명이 이들이 발견하였다고 한다. 다음날 마츠마에번의 근번소사람이 파견되어 조사한 결과 모선이 파선된 후 보트에 탄 14명 중 7명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손짓으로 알게 되고 작은 보트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철포 및 소지품을 근번소에 맡아두고 밤낮으로 경비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츠마에번의 에도 저택의 관리로부터 에도막부의 정책담당자 로주(老中青山下野守)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고 '8월부터 3월'까지 겨울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어려워 막부측의 답변을 기다리기 전에 나가사키에 보낼 수 있도록 미리 하코다데로 이송하겠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국인을 나가사키로 호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선박으로 1847년 '10월 5일(음력)' 나가사키를 출항할 때까지 이들은 일본에 1년 6개월 정도 체류하였다. '10월 29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1848년 '3월 1일' 미국으로 돌아간 사실은『嘉永元年オランダ風説書』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다호에 관련된 기록은 로렌스호보다 자세한데 이는 이들이 탈주를 여러 번 기도하여 좀[18]더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마츠마에(松前)西小砂子村에서 3척의 보트에 이국인 15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와 번소의 경호인원이 오후 2시쯤 그 장소에 가자 보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다가 오후 6시경 이웃마을 石崎村에 상륙하였으므로 에사시(江差), 마츠마에(松前)의 관리가 식량(보트 1척당 '玄米一斗、薪五尺,縄のもの壱把づつ')을 주었는데 다음날 아침 남쪽으로 사라졌다가 낮 12시쯤 江良町에 상륙하여 지도와 나침반으로 북북서쪽을 가리키며 모선이 파선하여 35명중 20명이 사망하고 남은 15명이라고 하고 보트도 5척 중 2척이 파선하였다고 하였다. 일본측은 바람이 좋아지면 북쪽으로 즉, 고려쪽으로 가면 큰 배가 많으므로 이에 옮겨 타라고 손짓으로 말하였는데 리더로 보이는 자가 의논하더니 이 배

17)『嘉永雜記』(1983)第弐冊 内閣文庫所蔵史籍叢刊, 汲古書院, p.35.
18) 관련기록은『弘化雜記』(1983)第四冊 内閣文庫所蔵史籍叢刊 汲古書院, p.3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듯이 보여서 江良町에 작은 가건물을 지어 밤낮으로 경비하고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 보고는 4일 뒤에 마츠마에번에 전달되어 11일 뒤에 에도 막부의 로주에 보고되고 9일 뒤에는 나가사키로 호송하도록 명령이 전해왔다. 나가사키에 호송된 후 네덜란드의 상관장이 이들을 조사하여 각 15명의 이름, 연령, 가족관계, 신장, 모습의 특징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7명은 뉴욕, 펜실베니아, 메사추세츠출신 미국인이며 나머지 6명은 하와이 출신임을 알 수 있다.(2명은 사망 그 중 한 명은 미국인, 한 명은 하와이인이라고 한다) 라고다호는 1846년 8월 25일(弘化3年 7月 4日)메사추세츠의 베드포드에서 출항하여 캄차카에서 포경을 하다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석탄과 물을 싣고 (하와이)오아후에 가서 어부17명이 하선하고 2명의 승무원과 어부 14명이 새로 승선하여 모두 30명이 승선하였으며 1848년 3월 27일 오아후를 출항하여 사할린, 에조 근처에서 고래를 잡고 고래기름은 1300배럴을 채취하였다고 한다. 5월 30일 풍랑이 심해져 6월 2일에는 위험하게 되어 보트에 나눠 타고 모선은 파선되어 6월 7일(5월 7일) 표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호송 도중 이들 중 3명이 가건물에서 처분이 두려워 천장을 통해 도주하려고 하였다가 다시 붙잡혔다고 한다.

라고다호의 선원들은 조업 중 도중해역에서 미국선박은 20척, 네덜란드 선박 2척, 프랑스선박 3척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모두 포경선이었다고 한다. 압도적으로 미국선박이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포경선의 설비나 비상주머니, 도구에 대한 설명과 경유를 등유나 윤활유, 머리 기름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네덜란드 상관장 레피존은 하와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는데 하와이에는 영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카메하메하국왕(31세)이 있어 외국에 점령된 섬이 아니라 독립국이라고 전하고 있다. 프레블호가 도착한 후 네덜란드 상관장이 프레블호(군함)함장과 만나 프레블호에 대하여 기록한 바에 의하면 프레블호의 승무원 수는 141명이고 3년 전 뉴욕에서 출항하여 남미를 돌아 홍콩에 주류한 선박이며 선장은 존 그린(James Glynn, 1800-1871)이고 당시 48세이며 표류민을 송환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은 없으며 표류민이 일본에 있는 사실은 중국에 주류하는 상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한다. 상사는 제독이며 이름은 David Geisinger이라고 4월 18일(3월 26일) 조사하고 있다. 결국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라고다호의 선원들은 11개월 일본에 체류한 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을 떠난 로렌스호와 라고다호의 선원에 관련한 뉴스는 당시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47년 12월에 네덜란드선박(Heriogenbosch)을 타고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에 있는 미국 영사에게 인도된 로렌스호의 경우는 그 사정과 경위가 1848년 1월 6일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게재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측의 기록에는 사망자 1명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선원 중 사망한 한 명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탈주를 기도하다고 피살된 것이라고 알려졌다.[19]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후미에(성모가 그려진 동판 밟기)를 강요당하였다는 사실과 좁은 곳에 억류되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20]

이러한 언설은 당시 포경선의 기항지였던 하와이를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확대 증폭되고 마침내는 미국의 상원회의에서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의사록 1850년 2월 21일[21]자를 보면 1850년 미국의 상원의회에서 일본에서 조난선원의 '학대문제'가 논의되고 사실 확인과 대책수행을 위하여 국무장관에게 보고를 촉구하는 결의가 나왔다. 그 후 당시의 크레이톤 국무장관은 사실 관계를 상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상원의회는 햄린(Hamlin)씨가 제안한 일본 당국의 처사에 대한 의사록을 숙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합법적 사업의 평화적 수행에 의한 대규모의 미국포경선단의 활동은 증가 추세이다. 일본국의 연안에서 미국선원에 대한 강제수용, 투옥, 야만행위에 대한 정보 사실이 국무장관의 인식에 도달하면 국무장관은 의회에 보고할 것이다'라는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상원의회에서의 결의 이외에도 1851년 1월 6일 민간변호사 에어런 파머(Aaron H. Palmer)[22]는 필모어대통령에게 신홍국지역에 사절을 보내어

19) Geoge Howe's statement U.S. Senate, Executive Doc't No.59, 32nd Congress, 1st Session, p.70-73

20) *New York Daily Times*, Vol. 1, No. 17, Feb. 2, 1852에 전송되어 게재되었다.
朝森要(1960),「ペリー施設の日本派遣と米国内外の反響」『日本歷史』, 145号, p.86.

21) *Journal of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st Session of the 31st Congress, 1849-1850, February 21, 1850 & April 25, 1850

22) 뉴욕에서 법률사무소(The American and Foreign Agency for Claims)를 개업하고 당시에는 연방대법원 법정전문변호사(Counselor of the Sureme Court of the U.S)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무역을 확대하기를 건의하였는데 여기에 포경선의 일본에서의 대우에 관한 내용이 있다. 파머는 과거 5년간 야만하고 굴욕적인 취급을 받은 조난한 미국인수부에 대하여 정부가 주의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한다.[23] 그는 1849년 9월 17일에도 당시의 국무장관 죤 크레이톤에게 라고다호 승무원의 일본에서의 구속과 수난, 그리고 미국군함 프레블호의 선장 존 그린이 그들을 나가사키에서 구출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당시 라고다호의 선원을 조사한 네덜란드의 상관장 레피존에게도 네덜란드 주재미국공사 테스터 남작(Baron F. M. W. Testa)을 통하여 1850년 1월 8일 서간을 보내어 미국의 선원을 '구출'한 것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24]

미국군함 프레블호의 선장 그린이 홍콩에서 출발하여 1849년 4월 17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라고다호의 선원을 송환한 후에 뉴욕을 경유하였을 때 1851년 1월 3일부의 뉴욕헤럴드에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이 때의 기사 제목은 '일본에서 구속된 미국인의 해방'이었으며 프레블호 함장의 공적을 칭송하는 기사가 특집[25]되었으며 그 결과 '비인도 국가 일본'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1853년 3월에는 잡지 풋넘스 먼스리에서는 페리의 일본원정을 앞두고 일본 근해에서 일본에 체포된 미국포경선원의 '학대문제'를 들어 원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포경선원은 일본에 기항할 수도 연료나 빵 물의 보급도 허용되지 않고 휴식도 취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모든 교역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선박이 난파하여 일본의 연안에 표착되기라도 하면 체포, 투옥되고 범죄자로서 취급된다. 일본의 제도는 일본인의 인간성을 속박하고 모든 외국인을 참혹하게 취급하도록 강요한다'고 쓰여 있는데 로렌스호와 라고다호의 경험이 크게 증폭되어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이러한 인도적문제가 크게 어필한 후 세론은 같은 방향으로 일치되었고,[27] 이러한 의견들이 동인도 사령

23) 33, 2, Senate Mis. Doc. No. 10, *Accomanying document B*
24) 「自分が長崎滞在中にパーマー書簡を受け取った」「日本紀」勝海舟編纂『開国起原』(Joseph Henry Levyssohn, Bladen over Japan, 1852)
25) 柴山哲夫(2004), 「米国世論に現れた日本「Misanthroic Orson」(人間嫌いの小熊)」『京都女子大学現代社会研究』
26) *Utnam's Monthly*, Vol.1. March 1853, No.241, pp.224-229.
27) *From St. Helena-Cruelty of the Japanese Toward American Sailors*, New York Daily Times, June 15, 185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 페리함대의 일본원정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Ⅲ. 맥도널드와 3건의 다른 선원에 대한 대우

로렌스호의 선원이 나가사키를 떠난 6개월 후, 그리고 라고다호 선원이 표착한 후 20일 정도 지난 1848년 6월 27일(5월 27일), 당시 24세인 라날드 맥도널드라는 청년이 홋카이도의 리시리섬에 상륙하였다. 포경원 선원이었던 그가 이전의 로렌스호나 라고다호의 선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놀랍게도 그가 의도적으로 일본에 상륙하였다는 점이다. 포경선 플리머스호를 타기에 앞서 그는 선장에게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해안 근처에서 자유롭게 배를 떠날 수 있도록 할 것, 항해 중에 경도와 위도의 관측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었고 그는 스스로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분의와 항해달력을 준비하였다.[28] 3월 6일 일본 근해에 들어간 후 고래를 잡고[29] 고래 기름을 충분히 확보한 후 그는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선장에게 요구하였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600달러에서 보트와 식료품등을 제외한 비용은 선장에게 신탁하고 서적, 문방구, 의류, 사분의를 가지고 보트에 탔다. 동료들은 이별을 아쉬워하였고 심지어 같이 가겠다는 선원조차 있었다.하와이에서 발행된 선원을 위한 잡지에는 맥도널드와 헤어진 뱃사람들이 기술한 이별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별을 슬퍼하여 모선에서 성조기를 흔들었고 보트에 탄 맥도널드도 준비한 백기를 흔들어 답하였다고 전한다.[30]

그는 '불행은 어떤 경우 통용'한다고 생각하여 표류를 위장하여 '일본의 잠긴 문을 열어보고자' 생각하여 실제로 보트를 전복시키고 일본에 상륙한 것이었다. 일본의 쇄국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고 일본인 표류민조차 국외에 한 번 나간 사람은 돌아가기 힘들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왜 일본 상륙을 감행한 것일까? 그의 어떠한 심정이 그를 일본으로 향하게 한 것일까? 맥도널드는 현

28) William S. Lewis, Naoki Murakami(1990), *Ranald MacDonald ; The Narrative of His Life, 1824-1894*, Oregon Historical ress, p.138.
29) 그는 고래잡이 어선을 250척에서 300척 보았다고 쓰고 있다.
30) *Seaman's Friend*, Honolulu, S,I., Issue of December 1, 184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재의 오레곤 아스토리아(영국의 독점적 모피교역회사 허드슨만회사의 출장소가 있었고 당시에는 포트 죠지라는 지명이었으며 1846년 미국에 영입되었다)에서 영국회사 허드슨만회사의 서기인 영국인 아버지와 인디언어머니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기록에서 그는 일본에 대하여 '바다를 건너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태평양의 조류의 영향으로 일본인이 표류하여 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1834년(맥도널드는 1836년으로 기억) 세 명의 일본인이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역인 플래터리(Cae Flattery)에 표착하였고 그 지역의 인디언이 '습관에 따라'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콜롬비아강 유역에 있던 허드슨만회사의 교역소장 존 맥로린(John McLoughlin, 1784-1857)는 '인류애'와 '사마리아인적인 자선행위'로 이들을 포트 뱅쿠버에 데리고 왔다. 이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일은 1832년 10월에 일본은 떠난 호준마루(宝順丸)에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였으나 도중에 태풍을 만나 14개월 동안 태평양을 표류한 끝에[31] 13명 중 오토키치(1819-1867)를 포함한 3명(音吉、久吉、岩吉)만이 살아남은[32] 것이다. 그리고 허드슨만회사의 배(Llama)를 타고 온 모습을 본 사람의 일기나 포트 뱅쿠버에서의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 이들이 허드슨만회사의 선박으로 영국을 향한 이야기 1906년에 다이가 쓴 맥도널드의 전기에는 맥도널드가 그들을 만나 일본어를 배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33]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맥도널드 스스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바다 건너편의 일본인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그가 1847년 하와이에서 포경선 플리머스호에 타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그곳에서 하와이에서 1846년 2월 2일에 뱃사람들의 잡지인 프렌드라는 잡지에 게재된 쿠퍼선장의 일본 방문담을 보고[34] 일본 상륙 모험의 힌트를 얻었을지 모

31) 池田皓編『日本生活資料集成5』漂流 三一書房 1968、春名徹(1979)『にっぽん音吉漂流記』晶文社、McLoughlin, John(1941), *The letters of John McLoughlin, from Fort Vancouver to the Governor and Committee ; first series*, 1825-38, Toronto:Chamlain Society.

32) 尾張国知多郡小野浦(原愛知県知多郡美浜町小野浦)에서 출발, 이들이 출발한 시기는 小野浦良参寺の過去帳의 기록에서 추정.

33) Eva Emery Dye(1906) *MacDonald of Oregon, a tale of two shores*, Chicago: A.C. McClug & Co., p.69.

34) 中川操(2005)「将軍の領土に乗り込んだアメリカインディアン(2)」『大阪経大論集』第56巻第1号、p.1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른다. 쿠퍼선장은 미국 포경선 맨하튼호의 선장인데 1845년 이즈의 도리시마에서 그 곳에 표착한 일본인을 비롯하여 22명의 일본인을 구조하고 당시 표류민 양도는 나가사키 이외의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라가에 상륙하여 이들을 일본측에 인계하였다. 당시 일본연안에서 조업하는 미국의 포경선이 증가한 만큼 미국포경선에 의하여 구조되는 일본인 어부가 많았고 이들이 하와이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35] 그는 스스로 일본의 국민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 대하여 일본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고 있다.[36] 무엇보다 1840년대의 미국의 팽창의 기운과 일본에의 동경이 그를 일본으로 향하게 하였다. '세계의 강국도 후비라이 칸도 격퇴하고 적을 국토에 오게 하지 못한 동양의 유토피아'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어떠한 국민인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황금이 빛나고 귀중한 부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맥도널드는 리지리섬의 노즈카(野塚)에서 아이누에게 발견되고 번소에서 토토마리 즉 모토토마리(本泊)에서 10일동안 체재하였다. 당시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소야(宗谷)근번소에 소속되고[37] 경제적인 지배권은 마츠마에(松前町)의 카시와야(柏屋(藤野)喜兵衛)가 가지고 있었다. 그가 노즈카에 상륙하였다는 소식은 곧바로 6월2일 리시리의 노즈카에 '이국인 한 명이 표착'하였다고 전해졌다. [38] 이 무렵 이국선의 등장은 홋카이도에서 종종 있는 일이었다. 2년전에는 에토로프섬에서 로렌스호 선원7명이 상륙한 바 있고 한달 정도 전에는 라고다선원이 15명이 상륙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관례에 따라 7월 13일(6월 22일) 마츠마에번주의 명의로 에도에 연락을 취하였다. 막부의 명은 8월 10일(7월 11일) 일단 에사시에 보낸 후 나가사키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39] 이 조치는 2년 전의 로렌스호나 1개월 정도 전인 라고다호의

35) 미국선박에 의하여 구조된 일본선원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산출해 본 결과 1805년에서 1854년간 20건 120명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면 이 기간 동안 일본에서 구조된 미국인의 6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36) William S. Lewis&Naoki Murakami(1990) p.132.
37) 1807년에는 러시아인에 의한 습격사건이 있어서 당시 막부는 아이즈번사를 사할린과 소야, 리시리 등에 파견해 경비를 맡기고 있었다
38) 松前藩士『湯浅此治日記』嘉永元年6月17日(1848年7月17日)『松前町史史料編』(1977)第2巻、p.306
39) 『通航一覧続輯』第4巻(1972)、博文堂、pp.379-38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경우와도 동일한 것이었다. 20일 정도 運上屋에 있었던 맥도널드는 소야의 번소로 보내졌다. 1848년 8월 25일(7월 26일)에 소야를 떠나 에사시를 향한다. 마츠마에에 도착한 것은 9월 7일(8월 10일)이므로 13일 정도 걸려서 도착하였고 가마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에사시마치에 도착하였다. 나가시키를 향하는 것은 10월 10일(9월 5일) 이므로 25일 간 이곳에 감금된 것이다. 나가사키에 입항한 것은 10월 11일(9월 15일)의 일이다. 그 날 1차 조사를 받고 13일에는 나가사키부교가 직접 심문하였다. 10월 14일에는 그의 소지품을 모두 인수하였다. 이러한 호송체계는 3건의 경우 뿐 아니라 다음해인 1849년 역시 홋카이도에 표착한 트라이덴트호의 3명에 대하여도 같은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나가사키에 도달하기 전에 맥도널드는 다른 미국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가 처음 노즈카의 번소에 있을 무렵 그는 쌀, 생선, 생강, 소금에 절인 조개, 다양한 야채절임을 받았는데 식전에도 식사중에도 몇 번이고 일본인들이 '그로그예스(grog-yes)'라고 부르는 병을 그에게 권하였다는 것이다. 이 음료는 쌀을 양조한 것으로 일본인은 사케라고 부르는 것인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 근처에 왔던 로렌스호의 선원들이 이 음료가 제공되었을 때 그로그(술)? 예스라고 하여 '그로그예스'라는 말이 회자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가 일본으로 오는 도중 중국에 들렀을 때 로렌스호의 선원 중 한명이 감금 중에 도주를 기도하다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공포스럽지는 않았고 계획을 변경하는 일도 없었다고 쓰고 있다.[40]

에사시의 간이 건물에서는 벽에 영어 J와 C가 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좀 더 씌여 있을지 몰라 둘러보니 천장에 있는 창문에 새로운 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곳의 담당자가 맥도널드를 기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살펴보니 로버트 맥코이와 죠지 블러디, 죤의 이름이 연필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담당자는 '아메리카'라고 하면서 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맥도널드는 알 수 없었지만 나가사키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들은 모두 거칠고 젊어 동료들끼리 싸움을 하였

40) William S. Lewis&Naoki Murakami(1990) p.16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고 한다. 8명은 미국인이고 7명은 하와이사람이었다. 이들 중 탈주를 시도한 것은 두 사람이었고 곧 붙잡혔다. '목이 베어지'는 일은 없었고 체벌조차 없었다고 그들에게 들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감옥에 넣어져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엄중히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둘 중 한 사람이 존 맥코이였던 것이다. 사실 맥코이는 그 뒤 2, 3번 더 탈주를 시도하였다. 맥도널드는 프레블호 선상에서 그들에게 직접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12개월 동안을 통하여 죄수로서 취급되기는 하였지만 대우는 좋았고 참혹한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었고 처벌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그들의 의견을 적고 있다. 한 사람 미국인이 사망하였지만 자연사였고 모든 의료치료와 친절한 간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와이 사람이 한 사람 자살하였지만 이는 별도의 이유라고도 적고 있다.

여기에서 맥도널드가 받은 대우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자. 그가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노즈카에서부터 숙소의 상황을 보면 침대는 없었지만 청결한 다다미가 있었고 두꺼운 면이불과 모기장이 있었다고 한다 의복도 선물로 주어졌다. 식사는 쌀밥과 생선, 야채절임이었으며 과자나 설탕절임, 담배와 차, 술도 제공되었다. 노즈카에서는 탕가로, 소야부터는 로렌스호의 죠지 하우 일행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영어를 조금 안다는 이유로 통역의 임무를 맡아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의사(谷芳斎)도 동행하여 건강상태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서양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로 보여지는 것은 소야에서는 벤치를 준비하고 이동하는 도중 포크와 나이프를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를 위한 테이블도 준비한 것이 그것이다. 그들이 서양인임을 감안하여 나가사키에 있는 동안은 나가사키에서 입수가 가능한 돼지고기를 7일에 한 번 주었으므로 맥도널드는 이 날을 일요일로 생각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양력으로 1월 1일에는 네덜란드 상관장으로부터 커피1병, 빵, 런던 아틀라스 신문68호, 위클리 디스팟치 등이 선물이 왔으며 책을 좋아하는 맥도널드는 잡지 선물에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귀국하기 위해 프레블호에 승선하기 전에 사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상관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은 식기, 나이프와 의자로 된 시설, 돼지고기와 빵으로 환대를 받았으며 네덜란드령 자바의 커피를 대접받았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우가 맥도널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사료를 통하여 밝힐 수 있다.

賄料例書 未年七月緑蘿庵に監禁した節(로렌스호의 선원)には、一日一人 銀二匁五分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申年八月資福庵に監禁した節(라고다호의 선원)には、一日一人 銀三匁
同年九月大悲庵に監禁した節(맥도널드)には右と同じ[41]

맥도널드의 경우는 호송되는 기간 동안 담배를 통하여 일본인과의 우호를 확인하기도 하고 통역과정에서도 친밀한 상황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소야에서 마츠마에로 이동한 때에는 하급공무원이 와서 이상한 영어와 몸짓으로 맥도널드를 이해시키거나 맥도널드의 말을 통역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재현하여 보면 그는 '카펜터'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치는 흉내를 내고 왼손으로 못을 잡는 흉내를 내며 '쉽'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맥도널드는 나가사키에 가기 위한 배를 수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맥도널드는 그때 '왜 그렇게 귀찮은 일(나가사키에 호송하는 일)을 하는가 그냥 이 곳에 있게 하면 되지 않은가'라고 하였고 이를 통역하자 웃음이 일면서 '노, 노, 나가사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나가사키에서 일본어단어를 영어로 옮겨 써서 수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카, 와루카, 후토카라는 나가사키의 방언이 기록되어 있고 '오보에와루이'라는 말이 있어 서양인에게 어려운 일본어를 기억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맥도널드의 모습을 방불케하는 대목이 있다.

Ⅳ. 나가사키의 상황과 맥도널드의 영어교사로서의 역할

1848년 10월 11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을 때 長崎奉行所의 異人係検使 与力白井達之進, 그리고 御用人竹村煎左衛門이나 御給人重山喜作이 그를 담당하였다. 비서는 필기도구, 유럽 제본책과 지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통역은 우에쿠라사쿠 시치로(植村作七郎, 당시 74세)와 모리야마 에이노스케(森山栄之助, 1820-1871)가 첫날 있었다고 한다. 네덜란드 상관장 레피존은 자신보다 모리야마가 네덜란드를 더 유창하게 한다고 맥도널드에게 이야기하였고 맥도널드는 모리야마의 영어에 대하여 '발음은 독특'하였지만 문법이나 문자구사는 우수하

41) 『通航一覧続輯第4巻』、pp.310-31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리야마는 유럽과의 통상과 습관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그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있다고 맥도널드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첫 번째 나가사키에서의 심문에서 맥도널드는 질문을 예상하여 준비한 대로 일본에 온 목적에 대하여 선장과 다투고 이선하였다고 말하였다. 호기심과 모험이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다투다라고 했을 때 모리야마는 가지고 있던 란영사전을 나에게 주고 그 단어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여 통역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날은 선실에서 숙박하였고 13일 이동하였다. 나가사키의 사람들은 이방인에 익숙한 지 그다지 호기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나가사키 부교쇼에 도착하였을 때 모리야마는 '무서워할 것 없다. 자신이 통역을 할 것이다. 잘 하겠다'로 말하였다. 그리고 '문 앞에 있는 금속판으로 된 상'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는 일본의 악마이고 '당신은 그 위를 밟고 지나가야한다'고 말하였다. 맥도널드는 나는 상을 믿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나가사키부교쇼에서 맥도널드는 재판이 진행되는지 몇 명은 손이 묶인채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모리야마에게 미리 들은대로 부교쇼의 심문장소의 입구에서 동판을 발견하였는데 보니 마리아와 예수가 그려져 있었고 그는 프로테스탄트라 주저 없이 밟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가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후미에'가 아니라 그 다음 상황이다. 계단 위에는 모리야마와 서기가 있었는데 이들은 깨끗한 다다미에 있었고 아래에 낡은 거적이 있었으므로 그는 일부러 그 거적을 발로 차고 의자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모리야마가 앉아달라고 하였는데 나는 유럽의 선원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리야마가 우호적으로 앉으라고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앉는 법을 배워 앉았다. 부교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하여는 35세 정도의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바로 그가 미일화친조약에 서명한 한 사람인 이도(井戸覚弘, 1845-1849 재임)이다. 그는 그 후 우라가부교가 되었고 페리가 왔을 때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맥도널드는 화가 나 있었으므로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부교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하였다고 한다. 그 후 모리야마에게 들은 바로는 '배짱있는 녀석'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맥도널드는 그 때 알아들었더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면 탈모하고 멋지게 감사의 표시를 했었을텐데하고 애석해하고 있다.

맥도널드의 숙소(감금소)는 黃檗宗 崇福寺塔頭「大悲庵」이었다. 그 날부터 9명의 통사가 교대로 그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도 부교쇼와 숙소에서 심문을 받았다. 연안을 측량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모선에서 혼자 보트로 떠나다니 대담하다'는 '찬사'를 듣고 미소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심문도중에 지도를 보여주고 항로와 정박한 지점, 주민, 산물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하였고 포경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다. 레피존이 부교소에서 동석하여 심문한 적도 있었다. 그는 계단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작은 테이블이 앞에 있었다. 레피존은 이미 네덜란드선박이 출범하였으므로 1년 기다려야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리야마와 우에무라는 매일 찾아와 친해졌다고 한다. 맥도널드는 매일 그들의 영어의 발음을 고쳐주고 일본어로 의미나 구문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맥도널드가 지적한 일본인들의 영어발음의 문제는 L발음과 자음의 발음이었다.

그가 나가사키에 체류한 7개월여 기간 동안 자신이외에도 다른 외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맥도널드는 특별히 누가 알려주지는 않았음에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회화를 주의 깊게 들으면 알 수 있었고 통사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밝히지 않고 맥도널드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맥도널드가 이 때 들은 영어는 대개는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주변에 서양의 뱃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맥도널드가 가장 불편하고 생각하였던 것은 좁은 공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던 점이었다. 맥도널드는 일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호기심과 모험심이 충분하였으며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일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심성이 책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으므로 일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나가사키마치 부교의 기록을 보면 맥도널드는 예의가 있고 정중한 인물이었으며 라고다호 선원은 '下賤の者'이라고 인식하고 무례한 일을 일삼으며(無礼な事ばかり働き) 그 중 2명이 병사하였다고 하지만 실은 그 중 한 명은 5명 중의 보스격인 인물로 서로 말다툼 끝에 한 사람이 목을 매어 죽었고 이를 '病死'로 처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파악한 싸움의 원인은 도망친 사람은 3, 4명인데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행동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항의하며 추궁당한 끝에 어쩔 수 없이 목을 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선원들이 처해진 상황을 살펴볼 때 넓은 공간에서 포경선을 타던 선원에게 일본의 협소한 공간이나 행동의 제약은 크게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은 있지만 특별히 '미국 표류민의 학대'라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맥도널드는 7개월 정도의 나가사키 체류기간 동안 그가 익힌 일본어를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 그는 일본어 어휘 총 50개를 적어서 남기고 있는데 그 중 날짜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아침, 낮, 저녁, 오늘밤, 밤, 어제, 오늘, 내일, 날씨 등이 있고 질문문으로는 언제, 왜, 어디, 누구, 어떻게, 어느 쪽 등의 말이 있다. 형용사는 나가사키의 방언이 있어 그의 나가사키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데, 좋다(요카), 나쁘다(와루카), 두껍다 혹은 뚱뚱하다(후도카), 크다, 작다, 자세하다, 많다. 재미있다 등이 있고, 부사로는 많게, 위로, 그 외 인칭 대명사, 동사로는 웃다, 때리다, 떨어지다, 자다, 일어나다, 울다, 알아차리다, 기억하다, 이야기하다, 속이다, 명사로는 와기사시, 칼, 혀, 밑 등이 있는데, 특히 지진이나 벼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당시 지진이나 벼락같은 자연현상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되어 흥미롭다. 그리고 장님, 바보, 머리나쁘다라는 표현도 있어서 언어를 서로 배우면서 있었음직한 상황이 연상된다.

모리야마와 우에무라는 매일처럼 방문하였는데 그 때 이들은 항상 영일사전을 지참하고 와서 영어를 음독하였다고 한다. 맥도널드는 그 발음을 고쳐주고 의미나 구문을 설명해주었으며 자음을 발음하기 어려워한다는 일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법에서 숙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가 최초의 '원어민 영어교사'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은 거의 7개월 동안 영어학습을 하였으며 맥도널드는 이러한 역할이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방공무원격인 네덜란드통사는 총 30가문 정도가 세습에 의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맥도널드가 올 무렵 이들은 영일사전을 만드는 등 영어학습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네덜란드 통사에게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 생긴 것은 1808년의 패튼호 사건 때문이었다. 페튼호 사건이란 1808년 10월 14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국선이 왔다는 보고가 나가사키의 부교쇼에 들어와 검사2명, 네덜란드 서기2명, 통역 2명등이 작은 보트로 나가 이국선과 접촉하였는데 이국선은 네덜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네덜란드어로 본선에 올라오라고 하여 의심없이 승선하자 갑자기 전원이 무장하여 나타나 네덜란드인 2명이 인질로 잡힌 사건을 말한다. 다음날 인질 중 한명이 돌아와 이국선은 영국선이며 물자를 공급하면 한 명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들의 요구에 따라 소4마리, 산양11마리, 닭10마리를 보냈다. 물자를 공급받은 페튼호는 유유히 사라지고 나가사키 부교 마츠다이라는 이 영국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살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막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다음 해 1809년 2월 막부는 네덜란드통사6명에게 영어를 습득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이것이 일본에서의 조직적 영어연구의 시작이다. 이 6명이 기모토쇼자에몬(1767-1822)년 스에나가 진사에몬, 바바다메하치로, 니시기치우에몬, 요시오다다오, 바바사주로이다. 이들의 교사는 네덜란드 상관장 차석인 브롬호프(Jan Cock Blomhoff)였다. 브롬호프는 아일랜드에서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어 영어를 알고 있었다. 6월에는 이와세 야주로, 기치오 로구지로(고노스케) 등 2명이 추가되고 8월에는 나가야마 도구주로, 石橋助十郎, 名村茂三朗, 志筑竜助, 茂土岐次郎, 本木庄八朗의 6명이 추가되었고 10월에는 전 통사에게 러시아어와 영어를 추가로 습득하도록 하는 명이 있었다. 이 영어 연구결과 2년 후인 1811년 1월에 일본에서 최초의 영어 학습서 『諳厄利亜興学小筌』[42]이 모토키쇼자에몬에 의하여 역술되었다. 이는 단어 회화표현을 일본어와 영어를 대조하여 적은 책이고 50년 정도 전에 쇼자에몬의 아버지가 네덜란드인에게 빌려서 필사한 네덜란드어와 영어의 대조 번역서를 참고로 만든 것이다.

어학학습서 이외에도 네덜란드어나 중국어로 된 영미의 관련서적을 번역하려는 움직임도 나왔다. 吉雄忠次郎는 文政8年(1825年)에 『諳厄利亜人性情志』[43]를 출판하여 미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살피고 安部竜平는 嘉永2年(1849년)에 『新字小識』을 출판하였다. 나가사키 부교쇼에서는 영어사전편찬명이 내려와 기모토

42) 日本英学史料刊行会(1982)『長崎原本「諳厄利亜興学小筌」「諳厄利亜語林大成」研究と解説』/大修館書店.
43) 本木正栄(1985)『諳厄利亜人性情志海表叢書』成山堂書店.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쇼사에몬을 중심으로 楢林栄左衛門, 吉雄大権之助, 末永甚左衛門, 馬場為八郎 등의 협력으로 앙게리아어림대성(諳厄利亜語林大成, 1814년)이 완성되었다. 이는 일본최초의 영화사전이라고 할 만한데 발음은 가타가나로 수록되었으며 단어 5910어를 수록했고 8품사를 중심으로 간단한 문법해설이 있다. 이 사전을 모리야마가 매일 지참하고 맥도널드를 찾아간 것이다. 맥도널드는 그가 영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항상 그가 책을 읽고 책을 좋아하는 습성을 일본인이 평가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Ⅴ. 결론

지금가지 '미국 표류민의 학대문제'를 맥도널드의 수기에 비추어 바라보았다. 맥도널드의 수기에 의하여 그가 일본에 있는 동안 어떠한 생활을 하였고 어떤 대우를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알 수 있었고 다른 미국인 선원도 같은 원칙에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협소한 곳에서 공적인 심문 이외에는 외출이 금지된 감금상태였고 후미에를 강요당하기도 하였지만 원칙에 의거하여 일관성있는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식사와 기호 식품이 제공되었으며 숙박이나 거주에 있어서는 정갈한 곳에 있었으며 처벌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호와 라고다호의 선원들이 스스로 기록한 기록이 없어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지만 맥도널드의 경우에는 통사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감시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우호적인 환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는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적으로도 책을 좋아하고 일본어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머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대한 물질적인 대우, 혹은 정신적인 대우를 보고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라고다호의 선원이나 로렌스호의 선원의 경우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보면 크게 비인간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행동의 제약은 있었지만 에도막부로서는 무사히 외국으로 이들을 송환시키기 전에는 안도하기 어렵고 다른 나라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경우를 보아도 표류민이 관리하는 체제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표류민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일화친조약, 나아가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전문 외교인력, 영어 통역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그 후의 외교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냈다. 맥도널드를 심문한 이도 나가사키 부교는 미일화친조약에 서명한 일본의 관리이고 맥도널드와 친분을 쌓은 모리야마는 페리와의 조약체결에 임하여 통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맥도널드가 오기 이전에도 통사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에 입각하여 영어를 학습하고 있었다. 다만 네덜란드 상관장의 차관으로부터 영어를 학습해왔으므로 네덜란드 액센트가 강한 영어였고 그런 의미에서 발음을 교정해준 맥도널드는 최초의 원어민 영어교사였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약체결 이후 고래기름의 채취율은 1865년의 경유 채취율 79.696톤으로 5년 전인 1860년에 비하여 2분의 1로 격감[44]하였다. 여기에는 고래 기름에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석유의 등장이 있었다. 포경선의 시대는 급격히 막을 내리고 말았다. 맥도널드는 포경선을 타고 일본근해에 와서 일본에 상륙하기 전 제주도를 지나면서 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의 요충지가 될 만한 곳이며 기후도 좋고 홍콩보다 시원하고 건강하며 풍부한 식물이 있고 자연의 혜택을 받은 곳으로 동아시아의 에게해의 마르타섬이 될 만한 곳이다. 앞으로 러시아는 이 섬을 탐할 지도 모른다. 이미 러시아는 치시마 열도를 수중에 넣었지만 '블러디보스톡조차 범선이 정박할 곳을 보증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하여 불만인 듯 '나는 기도교 전도이외의 세력이 제해권을 강화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포경선 전성시대 이후의 열강의 각축전을 예언하는 대목이다.

44) 石井孝에 의하면 가장 포경선이 많은 시기는 1840년부터 1860년까지이다. 1865년에는 급격히 60년에 비하여 반으로 격감하였다. 따라서 일본에 포경선원의 표착이 빈번한 1846년에서 49년 사이는 가장 포경선수가 많은 시기에 해당한다.(石井孝(1972) p.2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정하미(2011),「페리 함대의 통역자 윌리엄스의 경험과 역할-미간행 자료의 발굴」-『일본어문학』52집.
猪口孝(1999)『ペリー提督日本遠征記』NTT出版.
江越弘人(2008)『幕末の外交官 森山栄之助』弦書房.
大隅清治(2003)『クジラと日本人』岩波書店.
片桐一男 訳『レフィスゾーン 江戸参府日記』新異国叢書第Ⅲ輯 第6巻.
片桐 圭子(1993)「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に見る幕末・維新期の日本:対日認識の変遷とその背景を中心に」『日本研究』第9集.
河元由美子(2002)「米国捕鯨船員択捉島上陸一件-ローレンス号事件の記録をめぐって」『洋学史研究 20』.
川澄哲夫(1998)『資料日本英学史 1(上)・1(下)・2』大修館書店.
川澄哲夫(2004)『黒船異聞』有隣堂.
木村和男(2004)『毛皮交易が創る世界 ハドソン湾からユーラシアへ』岩波書店.
木村毅(1955)「日本にきた最初のアメリカ人」『日本文化交渉史4学芸風俗編』.
柴山哲夫(2004)「米国世論に現れた日本「Misanthroic Orson」(人間嫌いの小熊)」『京都女子大学現代社会研究』.
渋川六蔵(1993)『英文鑑』ひつじ書房.
日本英学史料刊行会編(1982)『長崎原本「諳厄利亜興学小筌」「諳厄利亜語林大成」研究と解説』大修館書店.
沼田次郎(1953)「開国への一寄与―レフェイスソーンの『日本雑纂』に就いて―」『日本歴史』63号.
春名徹(1979)『にっぽん音吉漂流記 』晶文社.
堀孝彦著(2001)『英学と堀達之助』雄松堂刊.
本木正栄(1982)『諳厄利亜興学小筌』大修館書店.
本木正栄(1985)『諳厄利亜人性情志海表叢書』成山堂書店.
山下一正(2004)『ペリー遠征の時代』サンセン出版.
吉村昭(2004)『海の祭礼(新装版)』文芸春秋.
M.C.Perry[他](2009)『ペリー艦隊日本遠征記 上』万来舎

Eva Emery Dye(1906) *MacDonald of Oregon: a Tale of Two Shores*, Chicago: A.C. McClug & Co.
William S. Lewis, Naoki Murakami(1990) *Ranald MacDonald; The Narrative of His Life*, 1824-1894, Oregon Historical Press.
Herman Melville(1851) *Moby-Dick; or, the Whale*, NewYork : Harper A Brothers.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Nitobe Inazo(1912) *The Jaanese Nation; its Land, its People and its Life*, New York: G. P. Putnam's Sons.

Marie L. Nichols(1945) *Ranald MacDonald Adventurer*, Caldwell, Idaho: the Caxton Printers Quarterly, October.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